TEXTILE FASHION TREND ISSUE
DYETECREVIEW 디텍리뷰 온라인

FASHION

K-패션업계 "80조원대 일본 시장 잡아야"

'K-패션, 패션업계의 일본 진출 움직임 불러지다

패션업계의 일본 진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시장 규모가 80조원대로 우리나라의 두 배인 데다, K-뷰티에 이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K-패션이 일본 시장을 파고 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대백화점은 지난 4일부터 일본에서 21개 한국 브랜드를 끌리는 '더현대 글로벌' 팝업스토어(이하 더현대 팝업)를 공연 중이다. 더현대 글로벌은 현대백화점의 K-패션 브랜드 수를 끌면했다이. 지난해부터 유명 유통 채널에 입사해왔 등을 여는 방식으로 한국 패션을 알리고 있다.

동해는 오는 6월 24일까지 3개월간 일본 오사카에 있는 유명 쇼핑몰 파르코 신사이바시점, 백화점인 다이마루백화점 신사이바시점 5곳에서 진행한다. 등 3곳에 팝업스토어를 설치·운영한다. 참여 브랜드는 전년보다 두 배가량 많은 21개다. 코오롱스포츠와 골프 브랜드 지오어와 일본에서 전개 중인 코오롱인더스트리F-ICF부문은 지난 15일 도쿄 신주쿠에 있는 루미네백화점에 '아카이브 앤드는 팝업스토어를 만들었다. 아카이브 앤가 일본 고객과 만나는 첫 오프라인 매장이다. 오는 20일까지 운영하는 이 매장은 브랜드 세계관을 구현한 전시와 다양한 이벤트로 한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국내 패션 브랜드의 맏은 매장 개설은 세계적인 패션 시장인 일본에서 K-패션 인기의 크게 높아서이다. 일본 마노정보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지 의류소매 시장 규모는 8조3564억엔(약 83조원)으로 세계 4위권에 해당한다.

무신사가 K-패션을 해외에 판매하는 온라인몰인 글로벌 스토어의 지난 1분기 일본 거래액은 전년 동기보다 174% 늘었다. 일본 최대과 구매 고객 수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입점 브랜드 중 마뗑킴 매출은 3배 이상 급증했다.

팝업스토어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현대백화점의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도쿄 파르코 시부야점에서 진행한 더현대 글로벌 팝업스토어는 30억원어치 판매 기록을 올렸다. 목표 매출의 150%를 넘어선 수치이자, 역대 파르코의 팝업스토어 가운데 매출 1위다.

업계는 일본 시장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코오롱인더부ICF 관계자는 "팝업스토어 성과를 바탕으로 현지 매장 개설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더현대 글로벌이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만큼 본격적인 비즈니스 모델 확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FABRIC DIVE

2025.04.30 TEXTILE FASHION ISSUE

FASHION

백팩·티셔츠…조끼까지?
라이더 패션 용품 사업 뛰어든 '배민'

올해 다양한 '배민라이더템' 선보일 예정

배달의민족이 패션·잡화 사업에 뛰어든 걸까. 최근 배민이 판매를 시작한 '백팩 형태 배달 가방'이 화제다. 라이더를 위한 기능성 가방으로, 앞모습도 배달 라이더 전용 제품을 대기 선보일 계획이다.

배민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최근 배달 전용 가방인 '배민라이더백'을 선보였다. 우아한청년들이 오직 라이더만을 위한 제품을 취급한다는 취지로 만든 배달용품 전문 브랜드 '배민라이더템'의 첫 제품이다. 배민백팩은 배민라이더 공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한다.

우아한청년들이 자체 제작하는 '배민라이더템'은 한장 모건과 수요를 직접 수렴해 라이더 만족제품을 개발한다. 실제 라이더 인터뷰와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실용성과 범용성, 고정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성 등을 고려해 디자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배민백팩은 지난해 첫 번째 백팩 인기에 힘입어 선보인 2세대 제품이다. 첫번째 백팩이 조기품절된 점을 반영해 이번에는 가능해 대폭 강화하고 수량도 늘렸다. 도보·자전거·킥보드 등 모든 이동수단에 적용 가능한 '올인원' 구조를 채택했다. 배달음식 고정물 없는 각 집한 구조로 내부공간을 둘렀고 자석개비식으로 설계해 편의성을 높였다. 방수원단(PVC+ATS)와 함께 360도 반사소재로 야간시야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 색상은 배민 브랜드컬러인 '민트'와 '민트&블랙' 두 가지로 구성된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민백팩을 필두로 올해 다양한 배민라이더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1분기 5월에는 기능성 티셔츠, 6월에는 우의·레플조끼·홀로그램, 7월에는 반사스티커와 방열 등을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배민라이더템은 라이더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만큼 실질적인 배달 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첫 번째 배민라이더템에 이어 지속적으로 배민백팩을 시작으로 라이더의 더 안전하고 개선된 배달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 S/S SEASON FASHION TREND

FASHION

하나의 아이템으로 다양한 환경에 활용 가능한 '옴니 패션 (Omni Fashion)' 트렌드

하나의 아이템으로 다양한 환경에 활용 가능한 '옴니 패션'

아웃도어업계가 하나의 아이템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옴니 패션(Omni Fashion)' 트렌드에 발맞추고 있다. 등산이나 캠핑 같은 특정 활동에 국한되던 아웃도어 의류가 이제는 도심과 여행을 넘나드는 다목적 아이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모든 것을 의미하는 옴니(Omni)와 패션(Fashion)의 합성어인 '옴니 패션'은 하나의 아이템으로 다양한 상황과 스타일에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실용성을 지닌 패션 트렌드를 뜻한다. 이는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 속에서 '가성비'와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으며, 일상과 아웃도어를 넘나드는 멀티유즈 아이템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아웃도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대담한 패턴이 아웃도어 액티비티까지 다양한 활동에 최적화된 제품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겨울은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고프코어(Gorpcore)' 스타일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아웃도어 제품의 활용 범위를 일상 생활, 거버운 등산, 여행, 출퇴근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노스페이스는 변화무쌍한 봄 날씨부터 여름철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한 '아웃도어 적도' 컬렉션을 내놨다. 이 컬렉션은 냉감 소재를 적용해 한여름까지도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1994 아웃도어 재킷'과 올시 40주년을 기념해 프리미엄에서 업그레이드한 '1985 아웃도어 재킷'으로 구성해 있다.

1994 아웃도어 재킷은 냉감 소재와 안감이 없는 가벼운 구조로 경량성이 뛰어나며 고유의 배색 절개 디자인으로 일상 생활에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연출 가능하다. 1985 아웃도어 재킷은 방수, 방풍, 투습성이 뛰어난 고어텍스 2L 소재를 적용해 한장 맞수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아웃도어 업계의 옴니 패션 트렌드는 소비자들이 합리적 소비 성향과 맞물려 새로운 상업 용하이 되고 있다"며 "네파, 노스페이스, K2 등 주요 브랜드들이 선보이는 다목적 활용 제품들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한 시장의 체리다임 전환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FASHION

한복 입은 덕수궁길, 런웨이로 변신…
'서울패션로드@정동'

서울패션로드 3번째 무대, 덕수궁길에서 개최

서울시는 도심 속 정상적 공간을 런웨이로 탈바꿈시키는 '서울패션로드' 3번째 무대인 '2025 서울패션로드@정동'을 오는 5월 2일 정동 덕수궁길(태평로~정동길)에서 열 수 구간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국내 유명 패션 브랜드들의 브랜드 경쟁력과 비즈니스 성과를 지원하는 글로벌 패션 플랫폼으로 서울패션위크를 매년 봄, 가을 개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와 패션을 연결하는 런웨이로 서울패션로드를 지난해 처음으로 기획해 삭존오수에 독성한강공원에서 장소별 다른 콘셉트로 두 차례의 독창적인 런웨이를 선보였다.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품은 정동을 배경으로 한 이번 세 번째 무대에서는 5월이 주는 계절적 매력 속에서 전통한복의 우아함에 현대적 디자인을 더한 신(新) 한복 스타일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패션쇼에는 우수한 디자인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한복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스타일화 스기로에 스크마크 스칸복스드레스 복은 등 4개 한복 브랜드가 참여한다.

패션쇼는 2일 오후 4시, 오후 7시 두 차례 옮있한 내용으로 펼쳐진다. 현장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2일부터 27일까지 서울패션로드 공식 사이트(런웨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추첨을 통해 회차별 3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원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덕수궁길의 돌담과 주변 역사 건축물은 멋의 작품에 따라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특별히 이번 패션쇼를 낮과 밤, 2개의 시간대로 구성했다"며 "덕수궁길과 한복의 완벽한 조합, 빛에 따라 달라지는 한 복의 그림 같은 특별한 런웨이를 많은 시민들이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FASHION

핫한 패션 트렌드로 떠오른
아버지의 옷, '대디코어'

편안함-실용성 앞세워 패션계 주도…낙낙한 셔츠와 슬랙스, 재킷 주목

매일 아침 아버지가 옷걸들 때 입던 익숙한 스타일, '대디코어(Daddycore)'가 다시 패션계의 중심에 섰다. 대디코어는 할 그대로 아버지 세대 옷들에서 영감을 얻은 패션 트렌드를 의미하는 신조어로 체력한 스타일로, 여유 있는 사이즈, 슬랙스, 클래식 재킷 등이 대표적이다. 핵심은 편안함과 실용성. 패션계에 뛰어나스 흐름이 강해지면서 좁고 타이트한 옷보다 여유 있는 실루엣이 주목받게 되었고, 그 흐름 속에서 대디코어는 자연스럽게 부상했다.

대디코어는 비교적 최근에 이름이 붙었지만 뿌리는 깊다. 1980~90년대 아버지들의 실용적인 일상복이 유래했으며, 첫보다는 기능에 집중한 스타일이었다. 과거엔 촌스럽게 여겨졌던 이 슬라젓 감성이 지금은 오히려 당혹한 멋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시즌 생로운은 익식도에서 영감을 받은 과장된 어깨 라인의 슈트를 통해 무심한 듯 신경한 '아버지의 멋'을 보여줬고, 꼼에에게 박토리아 베컴은 손에 서랍과 슬랙 대담들을 더해 위트를 담았다. 특히 도는 장식을 배제한 베스트 슬랙 룩으로 주목받았으며, 프라스는 대디코어 특유의 편한함을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제시했다. 로이 릴리엄 도허티와 에밀리아 윅스테드는 셔츠와 슬랙스를 활용해 현재적인 오피스룩을 연출했다.

가브리엘라 허스트는 플로 셔츠 위에 셔츠를 레이어드하고 오버사이즈 트렌치코트로 위미지한 멋을 더했고, 스텔라 매카니는 클래식 스커트 슈트에 트렌치코트를 매치해 장수를 자랑했다.

대디코어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멋을 발견하고 실용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사 및 사진 출처
1. 아주경제, K-패션업계 "80조원대 일본 시장 잡아야", 2025년 04월 17일
2.직방경제, 백팩·티셔츠·조끼까지…라이더 패션 용품 사업 뛰어든 '배민', 2025년 04월 20일
3. 한스경제, 바람도 막고 햇볕도 '옴니 패션' 경쟁, 대목 학업에, 2025년 04월 17일
4. 뉴스1, 한복 입은 덕수궁길, 런웨이로 변신…'서울패션로드@정동', 2025년 04월 20일
5. 동아일보, 한한 패션 트렌드로 떠오른 아버지의 옷, '대디코어', 2025년 04월 16일
6. 헤럴드경제, "장에 온 김에 아하하"…초저가 패션, 어디까지? [안박심], 2025년 04월 21일

FABRIC DIVE CONTACT
문의 : 다이텍연구원 데이터융합연구센터
TEL : 053-350-3744, 3908 EMAIL : fabricdive@dyetec.or.kr
JOIN US